



스물두번째 이야기

쉿! 액션!..... 컷!

[2020 ‘준비하라’ ⑧ BEE 영상팀]

봄이 오기도 전에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 교회 모임 자제 등의 상황들로 인해 황망해하고 있을 무렵, 4월 말 한동홀에는 낯선 장치들이 하나둘씩 설치되면서 카메라가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본부의 3층 세미나실 하나가 영상 촬영 및 편집을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토요기도모임을 실시간 또는 영상 녹화 송출하기 위해 박재현 영상팀장님, 김종량 집사님, 유재관 집사님 그리고 김성주 간사님의 수고가 영상 밖에서도 계속되고 있음에 감동하며 기쁨으로 수고하시는 네 분의 이야기를 ‘BEE수’가 전해드립니다.

BEE수: 멋진 우리 BEE 영상팀! 매주 토요일마다
영상 BEE 기도모임으로 인해 선교지와 BEE
가족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셔서 감
사드립니다. 영상팀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박재현 팀장: 작년 12월 코로나

19가 유행하기 전에 제가 방송 장비를 갖고 있으니 토요기도모임과 온비아 과정, 여러 이유로 토요기도모임에 참석 못하는 회원들, 특히 각국의 선교사님 소식 등을 영상으로 찍어 송출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본부도 이것저것 생각할 것들이 많았는지 회신을 받지 못했는데 한참 후 코로나19 상황이 되자 방송장비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BEE에는 아무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팀장이 되어 기술까지 전수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량 **집사**: 저는 어느 날 무서운(?) 한숙영 권사님의 전화 한 통에, 문외한이면서 서도 거절도 못하고 시작된 카메라맨 일이 어느덧 반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왕 시작 했으니 잘 해보자는 마음에

과잉의욕으로, 초기에는 BEE 식구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큰 사고 없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이고 같이 섬기시는 분들 덕분입니다. 각종 장비를 마련해주시고 미숙한 저를 이끄시는 박재현 팀장님, 편집 등 힘들고 중요한 일을 감당하시는 김성주 간사님, 온갖 궂은 일을 조용히 섬기시는 유재관 집사님께 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BEE수: 다들 처음이라서 서툴다고 말씀하시지만 프로 못지않은 열정과 기쁨으로 헌신하고 계신 모습이 은혜가 됩니다.

김종량 집사: 모든 분들이 즐겁게 섬기는 모습은, 예전에 어느 장로님께서 ‘사역은 관계’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몇 주 전에 이재훈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한 가지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하는 것이 더 큰 은혜가 있다”라고 설교 중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별 도움이 안 되는 저 같은 사람도 같이 섬기면서 기쁘고 즐겁고 많은 은혜를 누리는 걸 보면 말이죠.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 보람을 느끼면서 저는 ‘위장된 은혜’인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상팀을 만들어주신 것이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BEE수: 영상촬영에서 송출까지의 과정이 복잡하기도 하고 힘도 들 텐데 어떤 일들이 있나요?

박재현 팀장: 학원에서 홈피를 통해서 동영상을 판매하는 것과는 다르게 실시간 방송, 녹화 방송 등을 하려하니 처음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억지 춤향으로 시작된 것이 오늘 날까지 잘 진행되고 있어 참 주님의 은혜입니다. 토요기도모임 외에 동영상 강의 촬영과 편집, BEE Korea 홍보 영상도 찍고 편집하고, 해외 현지 선교사님들 영상 편집 및 통역도 해야 하고 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김성주 간사: 저는 영상팀에서 녹화 진행과 편집을 담당하고 있어요. 기계를 주로 다루다 보니 기계와의 호흡이 중요함을 느낍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호흡이 좋은 날은 녹화가 잘 되고 편집이 예쁘게 나옵니다. 녹화와 편집을 할 때 기계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얘들아! 잘 부탁한다.”

BEE수: 어느 사역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돋는 손길로 인한 감동이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의 상황에 등장한 BEE 영상팀에게 주시는 은혜도 클 듯합니다.

김성주 간사: 네, 영상팀에 함께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부족하지 않게 채우시는 은혜로 영상팀을 이끌어 가십니다. 팀원들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십니다. 매주 하나님과 팀원들을 만나는 시간 자체가 은혜입니다.

유재관 집사: 기술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하여 영상 촬영에 큰일은 못하지만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한 기쁨으로 수고하며 섬기시는 세 분의 모습을 보면서, 촬영이 잘 끝나고 영상이 송출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박재현 팀장: 함께 수고하는 우리 팀원들, 촬영에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시는 본부의 조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세 분의 간사님, 특히 촬영에 아무 관계도 없지만 간간이 직접 떡 등을 가져와 격려하신 한금선 권사님 등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방송사고 없이 모든 팀원이 하나되어 끝까지 소임을 다하실 것을 기도해주세요!



[정리 : 김옥숙 편집: 최선]

**국
그것이 알고 싶다**

선교지 VIETNAM

[베트남 전통 음식] 쌀국수(베트남어로 퍼, phở)는 육수에 쌀로 만든 국수와 고기를 넣고 기호에 따라 칠리소스, 라임즙, 고수, 느억맘 등을 넣어 먹는 베트남의 전통음식이다. 타인화 센터 학생들의 아침식사 (70명분, 사진 우)

BEE 소식

1. 2020년 하나님의 “준비하라”라는 음성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준비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암4:12).”

2. ‘함께함’이 사랑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비대면의 기도테이블 나눔 속에서, 서로를 향한 중보와 선교지 및 세미나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는 BEE 가족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3. 정대서 장로님께서 지난 몇 해 동안 아내 이혜정 권사님과 그리스도인의 결혼 세미나를 하시면서 찾아낸 결론을 “자기 중심성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출간하셨습니다. 나를 넘어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기 원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